

전북교육청, 초등 탐구노트 개발·보급

학생 자신감 향상 공교육 책임 강화

초 3~6학년 대상 국어·수학·영어 탐구노트 보급

도내 교원 직접 집필·검토... 사교육비 경감 등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 탐구 노트로 자신감을 높이고,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문해력 저하에 대응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별 탐구 노트를 개발·보급했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어휘를 체계화 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학습자료를 제작한 것이다.

탐구노트는 공교육 내 학력신장 책임 강화에 맞춰 개발된 자료로, 도내 현장 교원이 직접 집필·검토하고 대학 교수진이 감수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는 수업·보충지도·가정학습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격 학습 지원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습자신감 및 성취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2학기에 보급된 탐구노트는 초등학교 3~6학년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 각 4만7,000부다.

앞서 도내 초등학교 409개교 중 94%에 달하는 383개교가 사용 신청을 했으며, 학생수 기준으로는 4만5,365명(83%)에 이르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학기부터 보급을 시작한 '초등어휘사전 1600'은 학년별 400개 주요 어휘를 뜻·예문·활용·짧은 글 쓰기로 정리해 문해력 강화와 자기주도학습을 돕는다.

또한 '초등수학개념노트'는 핵심 개념·문제해결·정리로 이어지는 구조로 기본·응용·심화 학습을 지원하며, 학생이 직접 개념을 정리하고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발한 초등학교 교과별 탐구 노트.

마지막으로 '초등영어활용노트'는 단어·구문을 실제 문맥 속에 적음해 말하기와 쓰기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어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탐구노트가 학교와 교실에서 안착,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학부모 안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필진들이 직접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학습교청과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수학은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학부모 행사와 교원 수업 나눔 한마당에서 체험부스와 시연, 교실 속 챌린지 활동으로 학습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영어도 교실 속 챌린지 운영과 숏폼 영상·SNS 실컷 릴레이로 학생들이 만든 표현 과제를 확산해 접점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생은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교사는 수업과 보충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하위권 학생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플래그십 대학 성장 도약 발판 마련

전북대, 국민공감대상 혁신경영부문 수상... 미래형 대학 체계 구축 '인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공감대상 시상식에서 대학교육 발전과 혁신적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경영'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 'On AI 시대'를 공식 선언하고 2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엔 정부가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교내에 실증공간을 마련하고, 향후 18만㎡ 규모의 전용 캠퍼스를 조성한다. 또한 기업 연구소 및 카이스트·성균관대 등과 연계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년여 간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발전기금도 52



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표준협회 재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지방국립대 최초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대학으로의 위상도 높아졌다. 연구 분야에서도 QS 세계대학평가에서는 15개 학문 분야가 순위에 들었고, 수의학과와 석유공학은 세계 100위권에 진입했다.

이어 교육 혁신 분야에서도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106개 모집단위를 45개로 광역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납원 글로벌캠퍼스 설립과 유학생 5천 명 시대 준비를 위한 JNU 국제센터 개소 등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의 기반도 다져가고 있다.

특히 양오봉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으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하며 고등교육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수상은 전북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대학,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윤성찬 외래교수

이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 위촉

우석대학교 윤성찬(한의학과) 외래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로 위촉됐다.



이에 따르면 윤외래교수는 순천고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32년 경력의 임상한의사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수원시 보건의료인상과 경기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 대만에서 '세계를 빛낸 동양의학 리더상'을 받으며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

윤성찬 외래교수는 "대통령 주치의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오늘까지 전북교육발전특구

교육청-지자체 합동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19일 이틀간 목포 일원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교육청-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교육지원청 및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시군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의 전북지역 협력 추진 사례와 전북과 동일한 유형인 전남지역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모델 창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세션 △기관별 세션 △전체 통합 세션으로 구성, 시군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북지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로 만들어져 지역인재가 전북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등 교감 학교자율시간 이해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창조나래관 시청각실에서 학교자율시간 이해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관리자들이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내 교육공동체를 견인하고, 학교자율시간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분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자율시간 이해 연수를, 최영욱 봉동초 교감이 학교자율시간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 3~4학년이 사용하는 교육감 승인 과목을 18개 보유한 바 있다.

이는 초등 교육감 승인 과목을 개설한 8개 시·도 교육청 중에 가장 많은 과목 개설로, 전북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결과다.

또한 내년 사용을 목표로 21개 과목이 교육감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025학년도 1학기

해외교육실습 성과 보고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7일 교사교육센터 마을연구실에서 '2025학년도 1학기 해외교육실습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등에 파견된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참여학생들은 현지 수업 참여 경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문화적 이해 및 교육환경 비교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교원양성과정에 시사점을 제공, 대학의 글로벌 교육 역량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장은성 기자



이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재정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언급하면서 "지금쯤 공직자의 청렴과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 원칙이 엄격히 지켜질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장과 부서장들에게 세부 실행 지침을 전달하며 "각자의 책무를 다해 조직 내 책임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안 처리 신속히"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간부 대상 공직기강 특강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18일 분청 2층 강당에서 100여 명의 분청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강을 펼쳤다.

이날 특강에서 유 권한대행은 "2025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특강은 2025년 정책·사업의 성과와 점검하고, 2026년 내실 있는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올해 현재 재정 집행률이 낮아 고착 상태에 있는 현안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간부들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신속하게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의 기본 자세로 △업무에 대한 책임성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행하는 엄밀성 △정책과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전문성 등을 꼽았다.

전북교육청, 중학교 교원 대상 진로연계교육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중학교 교원 대상으로 진로연계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4개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연수와 학교 단위 연수(중학교 16교)로 나뉘어 총 30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에서는 △진로연계교육 개념 △진로연계교육의 내용과 편성 △운영 방식 △진로연계 프로젝트 수업 사례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실질적 내용을 다룬다.

특히 전북 진로연계교육 선도교사단 등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참여해 현장 교원의 이해를 높인다. /장은성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8일 전북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지역-대학 협력 모범사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
총동창회·지자체 뒷받침으로 3년 만에 식수 인원 6배 증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전북대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는 4년째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며 학생 복지와 지역 농업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왔다. 올해 사업은 3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20일간 30,000 명의 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0원, 대학 1,000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1,000원, 총동창회 1,000원, 학생 1,000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아침 식습관을 형성하고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쌀 소비를 늘리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모범적 사례"라며 "더 많은 대학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 복지와 지역 농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대표적인 대학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지역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 유괴 예방·교통안전 캠페인

전주우림초 일원서 진행

학생 등 대상 안전 메시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우림초등학교 일원에서 학생 유괴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지키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북교육청, 전주우림초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여해 등굣길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위급 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112 즉시 신고하기 등과 같은 유괴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우림초등학교 일원에서 학생 유괴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횡단보도 안전 보행 △교통신전 반사경(엘로카드) 배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일시 정지 준수 등을 홍보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생 안전이 교육의 최우선 과제인만큼 학교·

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며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하고 시간대 순환 강화, 등하굣길 안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